

스웨덴 여성당, 공당(公黨)으로의 여정: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홍희정 |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홍성현 |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¹⁾ 연구원

1. 들어가며

2015년 6월 말의 어느 아침, 스톡홀름 근교의 뉴네스함(Nynashamn)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항구로 이어지는 좁은 2차선 도로는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로 꽉 찼고, 여객선 대합실도 이른 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된 스웨덴 최대의 정치 박람회인 알메달렌(Almedalen)에 참가하기 위해 고틀란드 섬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알메달렌 공원에서 시민당 연설 장면

올해로 47주년을 맞는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는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올로프 팔메(Olof Palme)로부터 시작한다. 1968년 고틀란드에서 휴양 중이던 팔메 총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한 즉흥 연설이 알메달렌의 시작이었다. 이후 사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도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의 알메달렌이 탄생했다.

알메달렌이 개최되는 고틀란드 주도 비스뷔(Visby) 시는 인구 2만 3천 명의 작은 도시지만, 정치 박람회 기간만큼은 매우 많은 사람으로 북적인다. 이곳에는 모자, 티셔츠, 뱃지 등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부터 그저 지역 축제를 즐기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토론과 볼거리가 등장하는 이곳은 이제 무거운 정치 행사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지역축제로써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양한 홍보 부스 중에서도 천막부터 구성원의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온통 핑크색으로 도배된 여성당

1)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CIPS)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웨덴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아 교육·연구·출판 및 국제회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재단이다.

(Feminist Initiative)이 눈길을 끌었다. 소녀적 감성을 물씬 풍기는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당은 2005년 설립 이후 꾸준히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차기 의회 진출이 유력시 되는 정당 중 하나다. 페미니즘이라는 특수성을 표방한 정당이 보수적인 스웨덴 사회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공당으로 자리 잡은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여성당의 발전 과정을 통해 여성당이 어떻게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당의 시작과 발전

‘스웨덴은 지금까지 양성평등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왔지만, 남녀 간의 진정한 평등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여성당은 지난 2005년 공식 출범했다. 좌익당의 전 당수인 구드룬 슈만(Guudrun Schyman)과 일부 여성계가 연합하여 탄생한 여성당은 스웨덴 사회에 만연한 기존 비페미니스트 성향²⁾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스스로 독자적인 페미니스트 정당을 만들어 현재의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다양한 페미니스트의 견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Feminist Initiative, 2006).

여성당 초기 스웨덴 국민들은 상당수 이에 호응했다. 설립 후 1년 동안 약 1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문경희 · 전경옥 · 김미성, 2007). 여성당은 이 여세를 몰아 2006년 총선 참여를 선언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약 0.68% 획득에 그쳐 의회 진출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2008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2%의 지지를 얻어 2번째의 선거에서도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계속된 지지를 상승으로 2010년 스웨덴 총선에서 의회 진출을 기대하였으나 또 다시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2014년 5월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5.5%를 획득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유럽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4년 스웨덴 총선에서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4% 이상 득표로 의회 진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 3.1%에 그쳐 자국 의회진출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수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성당은 여전히 꾸준한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수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3. 여성당의 기본 이념과 보편성의 추구

여성당은 현 사회를 남성과 기성권력이 지배하는 불평등한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당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Feminism for alla)’을 모토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야말로

²⁾ 여성당은 스웨덴의 사회 구도가 이미 남성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런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지 않는 한 진정한 양성평등은 있을 수 없다는 급진적 주장을 제기하였다.



여성당 대표 구드룬 슈만의 실시간 토론 장면
(스웨덴 공영 방송국부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당의 주요 공약은 양성평등한 임금체계, HBTQ(homosexual, bisexual, transsexual and queer persons) 등 성(性)과 관련된 차별의 제거, 가사노동의 경제적 보상, 남성의 폭력 배제 등이다(Feminiskt initiativ, 2014). 이들 공약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인간의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성향의 정치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종차별주의를 지양하고,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연혁, 2014).

기존 정당과 다른 여성당의 파격적인 주장은 도시여성, 고학력 전문직 남성 등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과 명확한 지지계층의 존재는 초기 여성당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나, 의회 진출을 위해 스웨덴 국민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는 선거 때 마다 나타나는 낙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의회 진출에 실패한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여성당의 젠더 이슈가 여전히 스웨덴 국민의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여성당의 역할에 대한 여성계 내에서의 이견과 현 여성당과 기존 정당 내 여성조직과의 갈등도 여성당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정미애·문경희, 2010).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당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정계에서는 향후 총선에서 당연히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젠더이슈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출발한 여성당이 이제는 공당으로써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성당은 선거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꾸준히 선점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과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의 진정한 평등의 실현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당은 페미니즘의 구현이라는 목표의 특수성을 넘어 평등한 사회 구축이라는 보편적 목표 달성을 지향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4. 나가면서 - 특수성을 넘어 보편성으로

이상에서 스웨덴 여성당의 출범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여성당이 의회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차기에는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이러한 여성당의 약진 현상의 원인은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좌파 정당인 사민당, 좌익당, 환

경당도 계속해서 양성평등을 주장하였음에도, 여성당이 꾸준한 지지를 받는 것은 여성 권익 증진을 넘어 진정한 양성평등의 구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의 철폐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이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당은 이러한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 공천과정에서 여성 비율 쿼터제 의무화, 노동시장에서 남녀임금격차 최대비율 규정, 여성고용 비율 의무화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최연혁, 2014). 이른바 여성당은 특수성에 대한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공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고 의회 진출 등을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제 여성당은 급진적인 소수정치 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소수를 대변하는 공당으로써 활약할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여성당이 당당히 의회에 입성하여 다른 여러 정당과 더불어 알메달렌 광장에서 자신들의 이상을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문경희·전경옥·김미성(2007), 제도화된 여성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2)
- 정미애·문경희(2010),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79호
- 최연혁(2014), 스웨덴 2014년 총선 전후의 정당정치: 좌우블록체제에서 3당 정당체제로의 전환, 스칸디나비아연구
- Feminiskt initiativ(2006), 'Political Platform for a Feminist Initiative', <http://feministisktinitiativ.se>
- Feminiskt initiativ(2014), 'Feminism for alla', <http://feministisktinitiativ.se>